

90.1.29

설날선물 마련못해 고향못가 20대 여성노동자 비관 자살

【부산=연합】 26일 오전 11시께 부산시 남구 광안2동 157-34 정문식(43)씨 집에 세들어 사는 김현하(21·여·노동자·전남 고흥군 대서면 송림리 482)씨가 연탄화덕을 방안에 들여 놓은 채 숨져 있는 것을 함께 자취하는 친구 임인심(21)씨가 발견, 경찰에 신고했다.

임씨에 따르면 “아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방문이 안으로 잠겨 있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방 한가운데 연탄화덕이 놓

여 있고 현하가 방바닥에 누운 채 숨져 있었다”는 것이다.

경찰은 숨진 김씨가, 최근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오빠(28)가 결혼을 앞두고 결혼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 왔고 며칠 전부터 설날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지 못해 고향에 갈 수 없다며 고민해 왔다는 임씨의 말 등으로 미뤄 자신의 어려운 생활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.